

영화 속 춤곡으로 구성한 봄밤 무대

전주시립교향악단, 30일 전주국제영화제 기념 음악회 'SHALL WE DANCE' 개최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전주국제영화제를 기념해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주홀에서 기획공연으로 전주국제영화제 기념 음악회인 'SHALL WE DANCE'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주국제영화제 개최를 기념해 영화에 사용된 다양한 춤곡을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선보여 시민과 관객에게 새로운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적 감성과 무용의 리듬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월 위 댄스(Shall We Dance)'를 주제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춤곡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영화 속 장면과 함께 기억되는 음악을 생생한 연주로 구현해 관객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연의 문을 여는 곡은 아랍 하차투리안의 '가면무도회 모음곡'으로, 우아한 왈츠와 극적인 선율이 어우러져 무도회의 화려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이어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와 샤를-카미유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가 연주되며, 각각의 개성 있는 리듬과 강렬한 표현력으로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전주시립교향악단 기획공연 'SHALL WE DANCE'

이어진 2부에서는 알렉산드르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 공' 중 '플로베츠인의 춤과 샤를

누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발레 음악이 연주된다. 이들 작품은 화려한 군무와 서정적인 선율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무용음악으로,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통해 깊은 감동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대구시립교향악단의 백진현 상임지휘자가 객원지휘를 맡아 완성도를 높이며, 세계적인 퍼커셔니스트 심선민(강원대학교 교수)이 협연자로 참여한다. 특히 마립바와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연은 전주국제영화제를 기념해 영화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클래식 음악을 보다 친근하게 즐기며 문화 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의 입장권은 R석 1만 원, S석 7000원으로, 나투컬처 누리집 또는 전화(1522-6278)로 예약할 수 있다. 학생 및 예술인패스 카드·대중이카드 소지자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권희성 기자

'예술꽃이 피었습니다II' 행사 성료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자연·예술 접목 체험 프로그램 호응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지난 18일, 미술관 생태놀이터 '마음은 꽃밭' 일대에서 가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이 결합된 '예술꽃이 피었습니다II'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 예술을 접목한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행사에는 약 5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해 미술관 야외 공간을 활기로 가득 채웠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포함 만들기 △꽃 드로잉 △가족 꽃밭 조성 △꽃과 김밥 재료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꽃 돌돌 말아 납남' 등이 운영됐으며 △즉석 사진 촬영소 '꽃 사진관'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사진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된 만들기 및 드로잉 프로그램은 접수 단계에서 조



기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현장 참여방식으로 운영된 '꽃 사진관'과 어린이 공연 역시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꽃을 심고 가꾸는 과정을 즐기며 가족, 친구, 연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쌓고, 자연 친화적인 감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후지필름코리아와 업무협약 연장

창작 지원 범위 확대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후지필름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연장 체결하고 한국 독립영화 창작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민성욱·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과 임훈 후지필름코리아 사장은 지난 17일 후지필름코리아 본사에서 업무협약 연장 체결식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지난 3년간 시상금 제작지원 장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으며 이번 협약 연장을 통해 창작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한국경쟁 대상과 한국단편경쟁 대상 전주립 단편 제작지원에 더해 특별부문 후



지필름코리아상 1편이 신설된다.

또한 전주립 2차 기획개발비 지원 1편이 추가되면서 독립영화 창작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된다.

전주프로젝트의 기획개발 멘토링 프로그램인 전주립 지원도 확대돼 영화산업 기반 강화와

인재 양성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후지필름코리아는 지난 3년간 제작지원 작품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해왔다.

2024년에는 윤서진 감독 정동길 2025년에는 심현준 감독 클리어가 상영됐으며 올해는 장건재 감독 지축의 밤이 코리아시네마 섹션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작지원과 영화제 상영을 넘어 하반기에는 국내의 릴레이 상영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작품 유통 확대와 관객 접점 강화가 기대된다.

한편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시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김재훈 기자

순창공립미술관, 전북자치도 1종 미술관 공식 등록 완료

순창군은 순창공립미술관(본관·기획전시실)이 전북특별자치도 1종 미술관 등록 심의를 최종 통과해 공립미술관으로서의 공식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지난 2016년 개관 이후 약 10년 만에 이룬 의미 있는 성과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를 통과한 데 이어 최종 등록까지 완료함으로써, 공식 공립미술관으로서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

순창공립미술관은 '누구나 쉽게 찾는 문턱 낮은 미술관'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순창읍 본관(구 옥전골미술관, 남계로 81)과 적성면 기획전시실(구 삼진강미술관, 평남길 113)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읍내권과 면 지역을 아우르는 문



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전반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등 지역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은 이번 1종 공립미술관 등록을 계기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수준 높은 전시와 전문적인 교육·학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우리 가족 5월 이야기' 운영

익산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추억을 남기고 기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시민역사기록관에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우리 가족 5월 이야기'를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익산시민역사기록관에서는 사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엽서 쓰기를 비롯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운영된다.

특히 5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은 '기록관 밤나들이'가 진행된다.

기존 오후 6시까지였던 관람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

던 야간 기록관의 색다른 분위기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archives.ik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9-462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시민의 삶과 추억이 머무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백제문화체험관, 5월 가정의 달 체험·이벤트 진행

익산시는 백제문화체험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삼대(三代) 오오 백제로' 이벤트는 조부모와 부모, 자녀 등 3대 가족이 함께 방문하면 즉석 사진 촬영이 가능한 '인생네컷' 쿠폰을 증정한다. 5월 한 달 동안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진행된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가족이 함께 카네이션

화관을 만드는 체험을 운영한다. 행사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며, 오는 20~24일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행운의 돌립관' 이벤트도 마련된다. 돌립관 게임을 통해 마뽀이 헬름 풍선과 체험 이용 쿠폰 등을 제공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